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박사학위 논문

대학 태권도·체육계열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
정체감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강 대 길

대학 태권도·체육계열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 정체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in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at university,
career choi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2023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강 대 길

대학 태권도·체육계열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
정체감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이 계 행

이 논문을 이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강 대 길

강대길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윤오남 (인)

위원 세한대학교 교수 최공집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홍용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연호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계행 (인)

2023년 0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 모형 및 가설	5
4. 연구의 제한점	8
5. 용어의 정의	9
II. 이론적 배경	11
1. 태권도 계열	11
2. 체육계열	12
3. 전공 선택	15
4. 진로의 개념	16
5. 학과만족도	17
6. 진로정체감	18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조사도구	22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25
4. 자료 처리	28

IV. 연구결과	29
1. 태권도·체육계열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29
2. 태권도·체육계열에 따른 진로선택	33
3. 태권도·체육계열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53
4. 태권도·체육계열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59
5. 태권도·체육계열의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63
V. 논의	66
1. 태권도·체육계열의 전공 선택 동기 차이	66
2. 태권도·체육계열의 진로 선택 차이	68
3. 태권도·체육계열의 학과만족도 차이	74
4. 태권도·체육계열의 진로정체감 차이	75
VI. 결론 및 제언	77
1. 결론	77
2. 제언	80
참고문헌	81
부 록	89

표 목 차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21
표 2. 설문지 구성 시 지표와 내용	22
표 3. 학과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25
표 4. 진로정체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26
표 5.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 신뢰도분석	27
표 6.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29
표 7.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31
표 8.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	33
표 9.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	35
표 10.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	37
표 11.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	39
표 12.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41
표 13.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43
표 14.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	45
표 15.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	47
표 16.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	49
표 17.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	51
표 18. 태권도 계열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53
표 19. 태권도 계열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54
표 20. 체육 계열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56
표 21. 체육 계열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57
표 22. 태권도 계열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59
표 23. 태권도 계열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60
표 24. 체육 계열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61

표 25. 체육 계열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62
표 26.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63
표 27.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6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6

ABSTRACT

A study on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in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at university, career choi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Kang, Dae-Gil

Advisor : Lee, Gye-Haeng Ph.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d research on the motivation for selecting majors in college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career choi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The purpose is to present basic data that can be helpful for improvement. After selecting junior colleges and four-year universities loc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llanam-do in 2022,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were selected as the population. Using the significant sampling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1, 2022 to May 20, 2022, and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total of 475 people. It was used for research analysis. For the data processing of the study, IBM SPSS Statistics 27.0 program was used. Statistical techniques to b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include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rosstabulation (x2), difference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on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career choice,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in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in Taekwondo·Physical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in the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by grade. Second, as a result of the relevance of major choice to career choice in physical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male and female grad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in the difference in parents' thoughts about the career choice of physical education,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d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ade level in the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career choice between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majors. As for the important criteria for choosing future occupations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by gender, with salaries being high, and salaries, ability, and aptitude being high in grade level,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career identity between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aekwondo and physical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2018년도 이후 점차 증가하여 71.5%이며, 20~24세 취학률은 49.7%로 OECD 가입 국가의 평균보다 8.8%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하지만 2019년 기준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2009년부터 4.4%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0.9% 증가하여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20). 현재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로 여러 가지 지원 및 사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하면서 학생 자신들이 원하고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를 살리기보다는 취업률이 좋은 학교 또는 학과를 선택하고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자신이 바라던 직업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 중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홍창기, 2019). 이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대부분 경쟁적 환경에 놓여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방식에 쫓겨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바라고, 어떠한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에 대해,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할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개인의 적성, 흥미, 꿈 등 내재적 동기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성적, 취업률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한 경우 대학 생활 적응에 힘들 뿐만 아니라 적성에 맞지 않아 실제 대학에서 재수, 전과, 편입을 통해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이 많다(염퇴우, 2016). 또한, 대학생활 적응 문제 이외에도 자신들이 졸업 후에 진로의 방향이나 장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권혁진, 2009).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육계열 대학들도 예외는 아니다. 체육계열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 중 전공에 대한 구체적 지식 없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하는 경우와 다른 학과에 비해 낮은 합격점으로 진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체육계열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홍창기, 2019).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학업 중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홍창기, 2019). 내재적 동기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사의 충분한 상담 및 지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체육 교사, 체육지도자, 우수한 선수 등 전문적인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체육계열 학과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안보영, 2017). 따라서, 학생들에게 맞는 대학과 전공 선택은 자신의 적성, 흥미, 소질, 자신들이 설정한 진로계획, 목표, 전공과 직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윤수경, 한유경, 임소현, 김화영, 2015).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박채화, 2001).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이 진로의 발달로 볼 수 있으며, 일회적인 과정이 아닌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직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연관된 것이다(고재성, 정철영, 2006). 학생들이 합격 점수에 맞는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그 대학에서 자신들이 생각한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고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되도록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염뢰우, 2016).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확실하게 설계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박형모, 문승태, 2005).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고민하는 요인이 미래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문제’ 라고 보고하였다(한정신, 1991;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1995, 2001; 윤주영, 2000; 이정희, 2001; 이재경, 2001; 이종구, 윤창영, 황경열, 2002; 김성경, 2003; 한세대 학생생활상담소, 2004). 체육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을 ‘직업 및 진로문제’ (31.1%)라고 답하였고,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 생활 중 가장 많이 한 고민이 ‘장래직업 및 진로’ (53.6%)라고 답하였다(홍순모, 1998, 2002; 임순길, 2004).

장래직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설사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 낮고, 체육계열을 전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진로 영역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정청희, 1992).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 심해지면서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경찰, 소방 등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들의 적성, 전공, 흥미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닌 안정성이 보장된 직업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또한, 전국 대학생 중 4학년 이상 재학중인 400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 선택을 후회한다고 50.5%가 하였으며, 그렇게 답한 학생들 중 61%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유예 및 휴학을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3).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 일치하는 경우(36.9%)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38.0%)가 더 많게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이는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진로와 미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며, 비생산적으로 대학생활을 지내고 진로를 준비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하진의, 2003).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여 선택하고 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취업전망, 장래직업 및 진로에 대한 고

민 등의 이유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권혁진, 2009).

현대인들의 시대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운동에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체육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김재승, 2002).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체육의 발전과 운동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체육을 교육하는 체육교육학과, 특수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체육교육학과, 스포츠 과학화에 따른 체육학과, 개인의 건강 및 체력수준에 맞춰 운동을 처방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해주기 위한 운동처방학과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체육계열의 학과들이 발전하고 개설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과 관련된 학문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공에 따른 학과들이 연구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며,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설된 전공분야에 맞게 교육과정 및 환경이 구성되어야 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전공에 따른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김정하, 2006). 또한, 대학생활 동안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환경, 흥미, 적성, 전공 등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장래직업 및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은 가능한 다양한 방면으로 탐색하고 진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장해숙, 2007; 권혁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및 체육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알아보며, 나아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공분야에 따른 교육과정 및 환경을 보완하여 학과 만족도를 높이고, 체육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체육계열의 전문적 지도자 양성과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체육계열 전공들이 신설되었으며,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을 선택한 동기와 학과만족도를 알아보고,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 및 환경을 보완하여 학과 만족도를 높이며, 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여 학문적 발전과 학생들의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체육계열 전공 선택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진로산택과 전공선택동기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으로 학과만족도와 진로장체감을 중심으로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체육계열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 학년, 전공유형 총 3가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이는 배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독립변인은 진로선택과 전공선택동기로 구성하였고, 이는 단일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종속변인은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으로 구성하였으며 학과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교과만족도, 일반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학교만족도와 같이 4가지로 구성하였고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진로상담, 진로탐색, 진로준비노력으로 3가지로 구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체육계열 전공선택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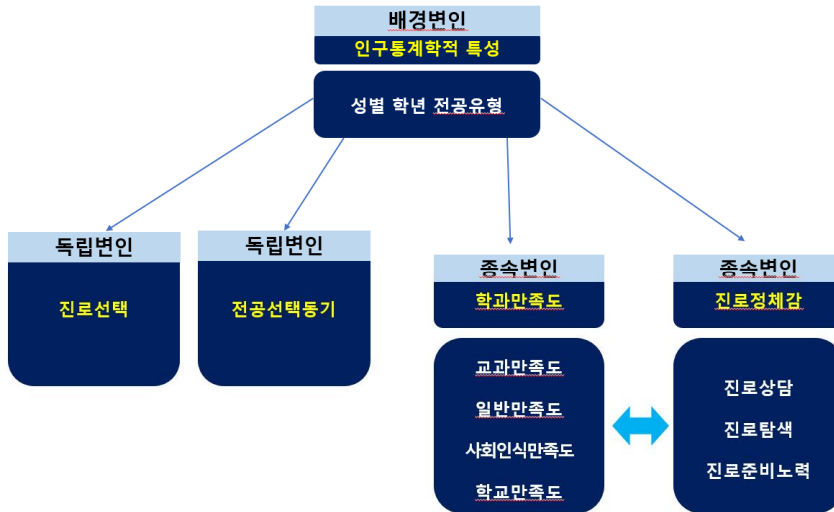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태권도 및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전공 선택 동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2.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진로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1. 성별에 따른 직업 선택과 전공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2. 학년에 따른 직업 선택과 전공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3. 성별에 따른 진로 방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4. 학년에 따른 진로 방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5.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6.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7.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8.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9.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10.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태권도·체육계열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학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1. 태권도 계열의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2. 태권도 계열의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3.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4. 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 태권도·체육계열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진로정체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1. 태권도 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2. 태권도 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3.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4. 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V. 태권도·체육계열에 따라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은 높을 것이다.

- V-1 태권도 계열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은 높을 것이다.
- V-2 체육계열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은 높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태권도 및 체육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조사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설정하였다.

첫째, 체육계열 학과를 체육교육학과,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처방학과,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모든 체육계열의 학생들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우리나라 태권도·체육계열의 모든 대학생들을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및 체육계열 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계열

우리나라의 국기이자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태권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실기적, 기술적 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의 필요성을 느껴 태권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 학과를 말한다(최상진, 2000; 강철우, 2014).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계열로서, 태권도학과, 태권도관련학부, 주로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과 모두 포함하여 태권도계열로 정의하였다.

2) 체육계열

대학에서 체육학, 체육교육, 체육과학 등 체육과 관련된 분야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학과를 말한다. 체육에 관한 전문 상식, 지식, 지도력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체육관련 지도자, 연구자, 체육교사 등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김태봉, 2005; 김지호, 2013).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체육계열을 체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계열로서, 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 건강관리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처방학과 등 태권도계열을 제외한 체육학문을 전공하는 학과 전체로 정의하였다.

3) 전공선택 동기

전공 선택은 자신이 미래에 대한 진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할 때 구체적인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 적성, 흥미 등과 같은 내면적 요인과 사회적, 가정환경 등의 외부적 요인을 말한다(추상희, 2020).

4) 진로

진로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인식하고 탐구하며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을 뜻하며, 개인이 종사할 직업에 대한 자리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개인의 행동, 태도, 동기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이선영, 2009; 조기욱, 2016).

5)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란 한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나 장래직업에 관련하여 설정한 기준과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판단 과정의 결과를 말한다(하혜숙, 1999).

6)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이란 한 개인이 직업에 대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목표 등의 자아 탐구를 통해 자기이해와 직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을 학습하여 바람직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두 이해 관계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구성하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진로와 관련된 자아를 형성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한다(이형국, 2007).

II. 이론적 배경

1. 태권도개설

1) 태권도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어떠한 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손과 발을 사용하여 공격과 방어 기술을 연마하여 심신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이자 무도이다. 태권도의 지향점은 수련하는 사람을 인간다운 인간, 즉 사람의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는 자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태권도를 수련하는 자는 평화를 지향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반복적인 예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활 속 포용력과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대한태권도협회, 2012).

2) 태권도학과

태권도는 다른 어떤 스포츠 종목보다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전하였다(전익기, 조성균,곽정현, 2001). 동시에 체육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으며 학문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면서 태권도에 대한 이론적, 실기적인 면에서의 체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중요시되었고(곽정현, 2005; 지치환, 윤상화, 조임형, 1997; 최상진, 2000), 이는 대학에서 태권도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학과를 개설하였다. 1982년 용인대학교를 시작으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었으며, 이어 1983년 경희대학교에서 태

권도학과가 개설되면서 태권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자리잡아왔다(김경지, 광정현, 2004).

2. 체육계열

1) 체육학의 개념

체육은 역사적, 인류학적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무용과 함께 전 세계사를 통하여 문화의 기본적 요소이며, 그 중 가장 오래된 인문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John E. Nxon, Ann E. Jewett, 1980).

체육이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인간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벽한 인간상을 형성하는 목적을 가지는 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아가 인간의 운동을 탐구하고 과학과 기술까지 포함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체육백서, 2007).

체육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인간의 움직임은 목적이 있고 자발적이며, 이는 과학과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움직임은 선택적 경험의 한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체육과 인간의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그것은 예술, 음악, 드라마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본질적인 유형이다. 인간은 체육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광범위한 감동의 범위를 표현되기도, 표현하기도 한다.

체육이라는 용어는 1700년대 후반 최초로 델사르트(Delsarte)의 문헌상에 “Education Physique” 로 기록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840년대에 신체와 교육이 합쳐져 체육은 “Physical Education” 이라는 용어로 일반화되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체육은 신체의 교육 활동과 신체를 통한 교육 활

동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1930년대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벽한 인간상을 형성하는 교육의 한 분야로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체육은 전인 교육론적 관점에서 정의되면서 학문적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신체활동 및 운동 자체에 대한 개념, 방향, 운동지각 형성에 대한 관심과 인간의 행동적 측면에서 운동의 현상에 입각한 연구로 확대되면서 움직임 교육, 운동학, 인간운동, 운동과학, 인간운동학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스포츠를 활용한 스포츠 과학, 스포츠 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체육백서, 2007).

2) 체육학과

체육학과는 체육의 이론적, 실기 이외에도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여 21세기를 이끌어 갈 유망한 체육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신체의 기능적, 형태적 발달을 높여 민주적 행동 기준발달과 기술적 향상 및 여가 선용에 교육적 목표를 두고 있다(김성문, 2003).

3) 체육교육학과

체육교육은 교과 내용학 및 교과 교육학을 기반으로 기초적 체육학과 응용적 체육학의 학습을 통해 중등 체육교과 학습 지도력을 함양하게 하고, 교육적 이념과 일반적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자의 소양과 인성을 갖춘 중등교육 체육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체육교육은 중등학교의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후 교원을 양성하는데 있어 기반이 될 수 있는 학습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운동에 대한 기능적 학습을 통해 교육적 이념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며, 민주적 시민으로서 소양과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로서의

교직 능력과 학생생활 중심 교과과정 등을 중요시 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체육교육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예방의학적 가치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수요와 함께 학문적 성격 또한 기능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레저스포츠학과

레저스포츠학과는 1992년 이론, 실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적 능력까지 갖춘 사회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사회체육과 2부로 신설되었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수요에 맞춰 그 명칭을 레저 혹은 여가스포츠로 변경하였고, 해당 교육과정 또한 대폭 개편되었으며, 전문적인 스포츠 경영이론과 많은 실기적 경험을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능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영민, 2011).

5) 기타 체육계열학과

체육계열학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문화된 체육과학적 지식과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실습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를 말한다(김지호, 2013).

이러한 학과는 스포츠과학 전공, 건강관리학과, 스포츠 의학과, 운동처방학과, 생활체육학과, 건강관리학과, 건강과학 전공,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경영학과 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수요에 맞춰 수많은 체육계열 학과들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지호, 2013; 고은미, 2005; 교육통계연보, 2008).

3. 전공 선택

전공 선택은 대학에 진학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 및 발현하고 자신의 적성, 재능 등 역량을 갖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며, 대학생활은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개인의 능력을 완성, 발전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신은지, 2017).

제각기 자라온 환경이 다른 학생들끼리 경쟁하며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며, 장래직업을 갖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배움터이자 예비사회라 볼 수 있다. 대학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은 예비 사회화를 경험하며 미래에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살려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 힘든 경우도 빈번하다. 대학이라는 사회로 첫 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은 미래의 진로에 대해 다가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대학에서 전공할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전공이란 어떠한 학문적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전공 선택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발전해 나가면서 사회에 나아가 우수한 인재가 되기 위해 개인의 능력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최지아, 2015). 또한, 전공 선택은 개인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의 자아에 대한 이해와 가정환경, 사회환경, 직업에 대한 이해도, 진로 설계 및 목표,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이건남, 정철영, 2009).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내부적 요소는 전공을 선택한 후에 자신의 학업적 성과, 흥미, 적성 등을 의미하고, 외부적 요소는 사회적인 환경과 인식 등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생 자신들의 학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예정, 2014).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이 자신들의 내부적 요소와 얼마나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전공 분야에 다가가는 기본적 태도가 다를 수 있다(양정호, 2005). 이를 볼 때 학생들이 바람직한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성격, 적성, 소질, 가치관, 흥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내부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한 전공 분야에 대한 특성, 관련 직업, 진로,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살려 직업을 갖기까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세정, 2000).

4. 진로의 개념

진로란 개인이 한 평생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 인식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택 및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사할 직업에 관련한 종합적인 의식이며, 직업에 대한 지식, 가치, 소양, 기술과 직업과 긴밀하게 관련된 자아개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진로는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결정하여 그에 맞춰 준비하고 결정한 진로에 들어서서 꾸준한 발전 및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교육적 활동이며, 개인의 일생을 통해 직업발달, 그 과정과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이선영, 2009; 이우근, 2009). 다시 말해, 진로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결정하여 선택한 진로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장래에 종사할 직업 분야에 대해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성문, 2003). 이와 반대로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인생에 대한 목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합격점이나 취업에 관련하여 막연하게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나가게 된다. 이는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진로 선택을 자신의 흥미, 성격, 가치관 등 자기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 진학 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과를 선택할 때도 취업에 유리한 조건, 주변의 권유, 성적만을 고려하여 소위 말해 인기가 있는 학과에 많은 지원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장석민, 2000).

이러한 현상은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우리나라 교육이 근본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개별화되고 체계적인 진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하다(김성문, 2003).

5. 학과만족도

1) 만족도의 개념

만족이란 물질적 혹은 정신적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심리적 으로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이 설정한 목표나 욕구를 달성했을 때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이지현, 2005). 만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때에 만족이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일반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은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만족감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의 과거나 현재 기대와 경험에 의해 만족감은 크게 영향을 받으며(Phillip E, 1976), 일상생활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설명할 수 있다(백정희, 2007). 또한, Burr(1970)는 만족감을 개인의 기대와 실제 받은 보상 간의 일치하는 정도라는 측면과 주관적으로 개인의 과거나 현재의 경험에서 비롯된 만족과

불만족,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 것,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의 현상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2)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의 개념은 주로 교육 행정적 측면에서 대학 학과 내 취약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학과와 질적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학과만족도와 관련하여 조직의 풍토, 학과의 풍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

하혜숙(1999)은 학과만족도를 한 개인이 설계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이해와 현재 자신이 소속된 학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설명하였으며, 현재 자신이 소속된 학과에서 교육받고 있는 전공 분야와 설계한 진로 방향과 일치한다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것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의 미래에 대한 진로 설계는 직업 준거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사회적 인식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개인적 요소로 학과의 특성과 달리 독립적으로 대학생활에서 개인의 적응력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는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개인에 따라 만족하는 학생과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권혁미, 2014).

6. 진로정체감

진로와 정체감이 결합된 진로정체감의 개념을 알아보기에 앞서 진로와 정체감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진로는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개인의 일생 동안 전체적인 직업 발달의 과정’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그러나 진로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는 ‘개인의 일생 동안에 걸쳐 가지게 되는 직업’이라는 의미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Isaacason과 Brown(2000)은 진로를 ‘개인이 평생동안 수행하는 일의 일체’라고 정의하였고, Arthur, Hall과 Lawrence(1989)는 진로는 개인의 인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였다. 즉, 진로는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역할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보상을 받지 않는 활동과 역할일지라도 진로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정체감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 자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인격체로 인식하는 느낌’이며(두간백과, 2018), 이는 지속적인 개인의 특성에 대한 감정이나 의식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정체감에 대하여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Erikson(1963)은 ‘자신에 대한 연속성있는 지각’이라고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역할, 신념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진로정체감을 진로와 관련한 자아정체감이라고 설명하였다.

Holland(1985)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로정체감을 한 개인이 직업에 관련하여 가지는 자신의 흥미, 목표, 소질에 대해 구체적인 안정적 상으로 설명하였고, 이는 자아를 탐색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진로정체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으며, 이는 자신의 흥미, 소질, 능력, 목표 등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는 개인적 정체감과 자신이 현재 속한 조직의 통합적 목표와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때 생기는 환경적 정체감으로 설명하였다. 강혜영(2002)은 Holland의 2가지 구분을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을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로 구분하여 진로정체감을 설명하였으며, 진로정체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형성되는 가치관으로 보았다(박태원 2019).

그리고 Triedeman과 O’ Hara(1963)는 진로정체감의 형성 과정을 진로

발달로 보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여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박태원 2019).

김봉환(1997)은 진로정체감을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변인으로 제시하였고, 자신의 성격, 흥미, 목표, 능력 등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의미한다고 진로정체감을 정의하였다. 또한, 이형국(2007)은 자아를 탐색하는 기회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 세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 두 가지 이해의 축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으로 진로에 관련된 자아상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진로정체감을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정의적 내용을 종합하면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미래의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대하여 자아개념 및 확고한 신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대학 태권도·체육계열의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 대상, 조사 도구,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22년도 G광역시·J라남도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선정한 후 재학 중인 남·여학생으로 태권도, 체육계열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475명을 대상으로 유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고, 설문 내용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거나 내용 일부가 미비한 반응을 보인 설문지 6부를 제외한 469명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사용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인구통계학적	세부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360	76.8
	여자	109	23.2
학년	전문대 1학년	59	12.6
	전문대 2학년	121	25.8
	대학 1학년	92	19.6
	대학 2학년	143	30.5
	대학 3학년	49	10.4
	대학 4학년	5	1.1
전공유형	태권도계열	241	51.2
	체육계열	228	48.8
계		469	100

<표 1>과 같이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자 360(76.8%)명, 여자 109(23.2%)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서는 전문대 1학년 59명, 전문대 2학년 121명, 대학 1학년 92명, 대학 2학년 143명, 대학 3학년 49명, 대학 4학년 5명으로 구성되었고 전공유형에서는 태권도계열은 240명, 체육계열은 229명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도구

1) 설문지 구성

표 2. 설문지 구성 시 지표와 내용

변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배경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3
		학년	
		전공유형	
독립변인	진로선택	진로선택	5
종속변인	학과만족도	교과만족도	19
		일반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학교만족도	
종속변인	진로정체감	진로상담	10
		진로탐색	
		진로준비노력	
독립변인	전공 선택 동기	전공 선택 동기	1
총 문항 수			38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유형으로 각 1문항씩 3문항으로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으며 학년은 전문대 1학년, 전문대 2학년,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 대학 4학년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전공유형은 태권도계열, 체육계열로 구성하였다.

(2) 진로선택

본 연구에서 진로선택의 설문지 구성은 염퇴우(2016), 박채화(2001), 조지현(2003), 김진석(2006), 구윤희(2007), 이선영(2009)의 연구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일차적으로 무엇을 채택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구성하였다. 진로선택을 묻는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본인의 직업선택은 전공 선택과 관련성이 높은지?’, ‘본인의 졸업 이후 진로방향 결정은?’, ‘부모님의 본인에 대한 진로방향 생각은?’, ‘본인의 진로선택의 영향은?’, ‘본인의 장래직업 선택의 중요 기준은?’ 으로 수정 보완하여 체크리스트인 5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 학과만족도

본 연구에서 학과만족도의 설문지 구성은 하혜숙(1999)과 안보영(201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기초로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항 내용을 수집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과만족도는 교과만족도, 학교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치를 수량화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Likert의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을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의 각 요인들이 연구에

있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4) 진로정체감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의 설문지 구성은 Holland, Gottfredson, Power(1980)와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에 부합하도록 알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상담, 진로탐색, 진로준비노력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는 측정치를 수량화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Likert의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을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의 각 요인들이 연구에 있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5) 전공 선택 동기

본 연구에서 전공 선택 동기의 설문지 구성은 송윤정(2014), 김동진(2020) 연구에서 사용된 전공 선택 동기에 대한 설문지 내용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전공 선택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적성과 흥미’, ‘학과인기도’, ‘취업 전망’, ‘점수(입학점수, 학점)’, ‘주변의 권유’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체크리스트 형으로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학과만족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과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문항들을 요인분석으로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전방법은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산(communality) 0.4이상을 기준으로 문항들을 판별하였다.

다음 <표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 내용 중 학과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표 3>과 같이 학과만족도의 하위요인은 교과만족도, 일반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학교만족도로 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KMO 지수는 .881, $\chi^2=8433.276(p<.001)$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만족도(.770~.876), 일반만족도(.611~.883), 사회인식만족도(.812~.896), 학교만족도(.832~.911)로 4가지 하위요인 모두 0.5이상의 요인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과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구성지표	사회만족	교과만족	일반만족	학교만족	신뢰도
13	.896	.095	.216	.068	.937
14	.881	.147	.194	.104	
12	.854	.039	.224	.040	
11	.831	.130	.137	.146	
10	.812	.243	.183	.271	
5	.044	.876	.115	.128	.915
4	.111	.855	.178	.147	
2	.201	.842	.185	.115	
3	.117	.817	.231	.173	
1	.119	.770	.055	.062	
18	.227	.187	.883	.137	.912
19	.189	.175	.880	.205	
17	.225	.196	.840	.127	
15	.268	.182	.819	.192	
16	.079	.060	.611	-.019	
8	.113	.173	.044	.911	.932
7	.103	.142	.175	.904	
6	.108	.141	.140	.889	
9	.169	.101	.122	.832	
전체	4.019	3.797	3.694	3.441	
분산비(%)	21.155	19.984	19.440	18.112	
누적(%)	21.155	41.139	60.578	78.690	

KMO & Bartlett's Test: KMO=.881, $\chi^2=8433.276(df=171, sig=.001)$

2) 진로정체감의 타당도 및 신뢰도

다음 <표 4>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 내용 중 진로정체감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표 3>과 같이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은 진로준비노력, 진로상담, 진로탐색으로 총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KMO 지수는 .880, $\chi^2=3344.836(p<.001)$ 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노력(.880~.901), 진로상담(.855~.927), 진로탐색(.866~.916)으로 3가지 하위요인 모두 0.5이상의 요인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정체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구성지표	진로준비노력	진로상담	진로탐색	신뢰도
9	.901	.183	.075	.898
8	.884	.209	.101	
7	.852	.185	.090	
10	.800	.147	.036	
1	.150	.927	.046	.919
2	.233	.911	.091	
3	.256	.855	.131	
4	.142	.047	.916	.879
6	.068	.058	.895	
7	.027	.135	.866	
전체	3.126	2.579	2.442	
분산비(%)	31.262	25.787	24.419	
누적(%)	31.262	57.049	81.468	

KMO & Bartlett's Test: KMO=.880 $\chi^2=3344.836(df=45, sig=.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아래와 같이 학과만족도를 구성하는 교과만족도(.915), 일반만족도(.912), 사회인식만족도(.937), 학교만족도(.932)의 4가지 하위요인과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진로준비노력(.989), 진로상담(.919), 진로탐색(.879)의 3가지 하위요인 모두 0.8이상의 값을 보이며 측정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 신뢰도분석

변인	척도	Cronba's α
학과만족도	교과만족도	.915
	일반만족도	.912
	사회인식만족도	.937
	학교만족도	.932
진로정체감	진로준비노력	.898
	진로상담	.919
	진로탐색	.879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설문 응답에 따라 처리된 설문지 자료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내용을 제외한 유효 표본자료만을 연구 조사 대상으로 식별하였으며, 분석 가능한 자료를 처리하여 종합하였다. 대학 태권도·체육계열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할 통계기술은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교차 분석(χ^2), 차이 분석(t-test, 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자료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 및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 도구의 설문지 구성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검증과 전공 선택 동기, 진로 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분석(χ^2), 차이분석(t-test,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LSD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체육계열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 태권도·체육계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유형)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변량분석(t-test,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태권도·체육계열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1)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표 6>는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적성과흥미	학과인기도	취업전망	입학점수	주변권유	합계
태권도계열	남	빈도 57	67	18	15	7	164
		% 34.8	40.9	11.0	9.1	4.3	100
체육계열	여	빈도 21	35	13	7	1	77
		% 27.3	45.5	16.9	9.1	1.3	100
계		빈도 78	102	31	22	8	241
		% 32.4	42.3	12.9	9.1	3.3	100
		$\chi^2=3.982$		$df=4$	$p=.408$		
태권도계열	남	빈도 56	47	15	42	36	196
		% 28.6	24.0	7.7	21.4	18.4	100
체육계열	여	빈도 8	2	4	9	9	32
		% 25.0	6.3	12.5	28.1	28.1	100
계		빈도 64	49	19	51	45	228
		% 28.1	21.5	8.3	22.4	19.7	100
		$\chi^2=6.803$		$df=4$	$p=.147$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때 태권도계열 남자는(적성과 흥미 : 34.8%, 학과인기도 : 40.9%, 취업전망 : 11%, 입학점수 : 9.1%, 주변권유 : 4.3%)로 나타났으며, 여자는(적성과 흥미 : 27.3%, 학과인기도 : 45.5%, 취업전망 : 16.9%, 입학점수 : 9.1%, 주변권유 : 1.3%)로 나타났다. 체육계열 남학생은 (적성과 흥미 : 28.6%, 학과인기도 : 24%, 취업전망 : 7.7%, 입학점수 : 21.4%, 주변권유 : 18.4%)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적성과 흥미 : 25%, 학과인기도 : 6.3%, 취업전망 : 12.5%, 입학점수 : 28.1%, 주변권유 : 28.1%)로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학과인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 요인의 차이를 ($p<.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08$).

체육계열은 남자는 적성과 흥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점수와 주변권유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의 차이를 ($p<.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147$).

2)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표 7>는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적성과흥미	학과인기도	취업전망	입학점수	주변권유	합계
태 권 도 계 열	A	빈도 6	8	1	2	1	18
		% 33.3	44.4	5.6	11.1	5.6	100
	B	빈도 21	27	14	1	2	65
		% 32.3	41.5	21.5	1.5	3.1	100
	C	빈도 8	16	5	4	0	33
		% 24.2	48.5	15.2	12.1	0	100
	D	빈도 28	31	6	14	4	83
		% 33.7	37.3	7.2	16.9	4.8	100
	E	빈도 14	16	5	1	1	37
		% 37.8	43.2	13.5	2.7	2.7	100
	F	빈도 1	4	0	0	0	5
		% 20	80	0	0	0	100
계	빈도 78	102	31	22	8	241	
	% 32.4	42.3	12.9	9.1	3.3	100	
		$X^2=25.415$		$df=20$	$p=.186$		
체 육 계 열	A	빈도 11	0	1	14	15	41
		% 26.8	0	2.4	34.1	36.6	100
	B	빈도 8	0	2	28	18	56
		% 14.3	0	3.6	50	32.1	100
	C	빈도 18	23	8	4	6	59
		% 30.5	39	13.6	6.8	10.2	100
	D	빈도 21	23	6	5	5	60
		% 35	38.3	10	8.3	8.3	100
	E	빈도 6	3	2	0	1	12
		% 50	25	16.7	0	8.3	100
	계	빈도 64	49	19	51	45	228
		% 28.1	21.5	8.3	22.4	19.7	100
		$X^2=104.400$		$df=16$	$p=.001$		

A:전문대1년, B:전문대2년, C:대학1년 ,D:대학2년, E:대학3년, F:대학4년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요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요인을 살펴본 결과 태권도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 (적성과 흥미 : 33.3%, 학과인기도 : 44.4%, 취업전망 : 5.6%, 입학점수 : 11.1%, 주변권유 : 5.6%), 전문대 2학년은 (적성과 흥미 : 32.3%, 학과인기도 : 41.5%, 취업전망 : 21.5%, 입학점수 : 1.5%, 주변권유 : 3.1%). 대학 1학년은 (적성과 흥미 : 24.2%, 학과인기도 : 48.5%, 취업전망 : 15.2%, 입학점수 : 12.1%, 주변권유 : 0%), 대학 2학년은 (적성과 흥미 : 33.7%, 학과인기도 : 37.3%, 취업전망 : 7.2%, 입학점수 : 16.9%, 주변권유 : 13.5%), 대학 3학년은 (적성과 흥미 : 37.8%, 학과인기도 : 43.2%, 취업전망 : 13.5%, 입학점수 : 2.7%, 주변권유 : 2.7%), 대학 4학년은 (적성과 흥미 : 20%, 학과인기도 : 80%, 취업전망 : 0%, 입학점수 : 0%, 주변권유 : 0%)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 (적성과 흥미 : 26.8%, 학과인기도 : 0%, 취업전망 : 2.4%, 점수 : 34.1%, 주변권유 : 36.6%), 전문대 2학년은 (적성과 흥미 : 14.3%, 학과인기도 : 0%, 취업전망 : 3.6%, 점수 : 50%, 주변권유 : 32.6%). 대학 1학년은 (적성과 흥미 : 30.5%, 학과인기도 : 39%, 취업전망 : 13.6%, 입학점수 : 6.8%, 주변권유 : 10.2%), 대학 2학년은 (적성과 흥미 : 35%, 학과인기도 : 38.3%, 취업전망 : 10%, 입학점수 : 8.3%, 주변권유 : 8.3%), 대학 3학년은 (적성과 흥미 : 50%, 학과인기도 : 25%, 취업전망 : 16.7%, 입학점수 : 0%, 주변권유 : 8.3%)으로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은 학년 모두 학과인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요인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86$). 체육계열은 전문대 1학년과 전문대 2학년은 주변권유가 가장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과 대학 2학년은 학과인기도가 높게 나왔으며, 대학 3학년은 적성과 흥미가 높게 나왔다.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태권도 · 체육계열에 따른 진로 선택

1) 나의 직업선택은 전공 선택과 관련성이 높다.

(1) 성별에 따른 결과

<표 8>는 태권도 ·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8.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합계
태권도	남	빈도 6	133	20	응답	5	164
		% 3.7	81.1	12.2		3.0	100
체육계열	여	빈도 2	63	12	없음	0	77
		% 2.6	81.8	15.6		0	100
계열	계	빈도 8	196	32	음	5	241
		% 3.3	81.3	13.3		2.1	100
		$X^2=2.982$		$df=3$	$p=.394$		
태권도	남	빈도 27	92	47	25	5	196
		% 13.8	46.9	24.0	12.8	2.6	100
체육계열	여	빈도 2	10	17	3	0	32
		% 6.3	31.3	53.1	9.4	0.0	100
계열	계	빈도 29	102	64	28	5	228
		% 12.7	44.7	28.1	12.3	2.2	100
		$X^2=9.923$		$df=4$	$p=.042$		

<표 8>에 제시된 바와 태권도 ·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때 태권도 계열에서 남자는 (매우 그렇다 : 3.7%, 그렇다 : 81.1%, 보통이다 : 12.2%, 아니다 : 응답없음, 전혀 아니다 : 3%), 여자는 (매우 그렇다 : 2.6%, 그렇다 : 81.8%, 보통이다 : 15.6%, 전혀 아니다 : 0%)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

서 남자는 (매우 그렇다 : 13.8%, 그렇다 : 46.9%, 보통이다 : 24%, 아니다 : 12.8%, 전혀 아니다 : 2.6%), 여학생은 (매우 그렇다 : 6.3%, 그렇다 : 31.3%, 보통이다 : 53.1%, 아니다 : 9.4%, 전혀 아니다 : 0%)로 남학생은 ‘그렇다’, 여자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은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그렇다(81.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 선택 요인의 차이를 ($p < .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394$). 체육계열은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에서 남학생은 ‘그렇다’, 여자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 선택 요인의 차이를 ($p < .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42$).

(2) 학년에 따른 결과

<표 9>는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9.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합계
태 권 도 계 열	A	빈도 0	14	4		0	18
		% 0	77.8	22.2		0	100
	B	빈도 3	55	7		0	65
		% 4.6	84.6	10.8		0	100
	C	빈도 0	26	7	응 답 없 음	0	33
		% 0	78.8	21.2		0	100
	D	빈도 3	67	8		5	83
		% 3.6	80.7	9.6		6	100
	E	빈도 1	30	6		0	37
		% 2.7	81.1	16.2		0	100
	F	빈도 1	4	0		0	5
		% 20	80	0		0	100
계	빈도 8	196	32		5	241	
	% 3.3	81.3	13.3		2.1	100	
		$X^2=20.630$		$df=15$	$p=.149$		
체 육 계 열	A	빈도 1	7	17	13	3	41
		% 2.4	17.1	41.5	31.7	7.3	100
	B	빈도 1	20	21	12	2	56
		% 1.8	35.7	37.5	21.4	3.6	100
	C	빈도 11	33	14	1	0	59
		% 18.6	55.9	23.7	1.7	0	100
	D	빈도 13	35	10	2	0	60
		% 21.7	58.3	16.7	3.3	0	100
	E	빈도 3	7	2	0	0	12
		% 25.0	58.3	16.7	0	0	100
	계	빈도 29	102	64	28	5	228
		% 12.7	44.7	28.1	12.3	2.2	100
		$X^2=71.735$		$df=16$	$p=.001$		

A:전문대1년, B:전문대2년, C:대학1년 ,D:대학2년, E:대학3년, F:대학4년

<표 9>에 제시된 바와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이다. 학년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때 태권도 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 (매우 그렇다 : 0%, 그렇다 : 77.8%, 보통이다 : 22.2%, 아니다 : 응답없음, 전혀 아니다 : 0%), 전문대 2학년은 (매우 그렇다 : 4.6%, 그렇다 : 84.6%, 보통이다 : 10.8%, 전혀 아니다 : 0%), 대학 1학년은 (매우 그렇다 : 0%, 그렇다 : 78.8%, 보통이다 : 21.2%, 전혀 아니다 : 0%), 대학 2학년은 (매우 그렇다 : 3.6%, 그렇다 : 80.7%, 보통이다 : 9.6%, 전혀 아니다 : 6%), 대학 3학년은 (매우 그렇다 : 2.7%, 그렇다 : 81.1%, 보통이다 : 16.2%, 전혀 아니다 : 0%), 대학 4학년은 (매우 그렇다 : 20%, 그렇다 : 80%, 보통이다 : 0%, 전혀 아니다 : 0%)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 (매우 그렇다 : 2.4%, 그렇다 : 17.1%, 보통이다 : 41.5%, 아니다 : 31.7%, 전혀 아니다 : 7.3%), 전문대 2학년은 (매우 그렇다 : 1.8%, 그렇다 : 35.7%, 보통이다 : 37.5%, 아니다 : 21.4%, 전혀 아니다 : 3.6%), 대학 1학년은 (매우 그렇다 : 18.6%, 그렇다 : 55.9%, 보통이다 : 23.7%, 아니다 : 1.7%, 전혀 아니다 : 0%), 대학 2학년은 (매우 그렇다 : 21.7%, 그렇다 : 58.3%, 보통이다 : 16.7%, 아니다 : 0%, 전혀 아니다 : 0%), 대학 3학년은 (매우 그렇다 : 25%, 그렇다 : 58.3%, 보통이다 : 16.7%, 아니다 : 0%, 전혀 아니다 : 0%)로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은 학년 전체에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요인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49$). 체육계열은 전문대 1학년과 전문대 2학년은 ‘보통이다’가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은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요인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졸업 이후 진로방향을 결정했는가?

(1) 성별에 따른 결과

<표 10>는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0.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

		가	나	다	라	마	합계
태권도계열	남	빈도 21	119	24			164
	여	% 12.8	72.6	14.6	응답	응답	100
체육계열	남	빈도 7	58	12	없음	없음	77
	여	% 9.1	75.3	15.6	없음	없음	100
		빈도 28	177	36			241
		% 11.6	73.4	14.9			100
		$X^2=.708$		$df=2$	$p=.702$		
태권도계열	남	빈도 98	41	8	17	32	196
	여	% 50	20.9	4.1	8.7	16.3	100
체육계열	남	빈도 16	3	0	3	10	32
	여	% 50	9.4	0	9.4	31.3	100
		빈도 114	44	8	20	42	228
		% 50	19.3	3.5	8.8	18.4	100
		$X^2=6.547$		$df=4$	$p=.162$		

가:전공관련 지도자, 나:전공관련 행정업무, 다:전공관련 연구가, 라:체육교사, 마:전공 무관 업무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태권도계열에서 남자는 (전공관련 지도자 : 12.8%, 전공관련 행정업무 : 72.6%, 전공관련 연구가 : 14.6%, 체육교사 : 응답없음, 전공 무관 업무 : 응답없음), 여자는 (전공관련 지도자 : 9.1%, 전공관련 행

정업무 : 75.3%, 전공관련 연구가 : 15.6%, 체육교사 : 응답없음, 전공 무관 업무 : 응답없음)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 남자는 (전공관련 지도자 : 50%, 전공관련 행정업무 : 20.9%, 전공관련 연구가 : 4.1%, 체육교사 : 8.7%, 전공 무관 업무 : 16.3%), 여자는 (전공관련 지도자 : 50%, 전공관련 행정업무 : 9.4%, 전공관련 연구가 : 0%, 체육교사 : 9.4%, 전공 무관 업무 : 31.3%)로 남자는 전공관련 행정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체육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은 성별 전체에서 전공관련 행정업무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의 차이를 ($p < .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702$). 체육계열은 남자는 전공관련 행정 업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체육교사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의 차이를 ($p < .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62$).

(2) 학년에 따른 결과

<표 11>는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1.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

		가	나	다	라	마	합계
태 권 도 계 열	A 빈도	1	15	2			18
	A %	5.6	83.3	11.1			100
	B 빈도	11	44	10			65
	B %	16.9	67.7	15.4			100
	C 빈도	1	23	9			33
	C %	3	69.7	27.3	응	응	100
	D 빈도	10	65	8			83
	D %	12	78.3	9.6	답	답	100
	E 빈도	4	26	7			37
	E %	10.8	70.3	18.9	없	없	100
	F 빈도	1	4	0			5
	F %	20	80	0			100
계	빈도	28	177	36			241
계	%	11.6	73.4	14.9			100
		$X^2=11.765$		$df=10$	$p=.301$		
체 육 계 열	A 빈도	19	0	0	3	19	41
	A %	46.3	0	0	7.3	46.3	100
	B 빈도	24	7	0	2	23	56
	B %	42.9	12.5	0	3.6	41.1	100
	C 빈도	34	13	6	6	0	59
	C %	57.6	22	10.2	10.2	0	100
	D 빈도	30	23	2	5	0	60
	D %	50	38.3	3.3	8.3	0	100
	E 빈도	7	1	0	4	0	12
	E %	58.3	8.3	0	33.3	0	100
	F 빈도						응답없음
	F %						
계	빈도	114	44	8	20	42	228
계	%	50	19.3	3.5	8.8	18.4	100
		$X^2=101.620$		$df=16$	$p=.001$		

A:전문대1년, B:전문대2년, C:대학1년, D:대학2년, E:대학3년, F:대학4년

가:전공관련 지도자, 나:전공관련 행정업무, 다:전공관련 연구가, 라:체육교사, 마:전공 무관 업무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이다. 학년에 따라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태권도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5.6%, 전공관련 행정업무 : 83.3%, 전공관련 연구가 : 11.1%, 체육교사 : 응답없음, 전공 무관 업무 : 응답없음), 전문대 2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16.9%, 전공관련 행정업무 : 67.7%, 전공관련 연구가 : 15.4%), 대학 1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3%, 전공관련 행정업무 : 69.7%, 전공관련 연구가 : 27.3%), 대학 2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12%, 전공관련 행정업무 : 78.3%, 전공관련 연구가 : 9.6%), 대학 3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10.8%, 전공관련 행정업무 : 70.3%, 전공관련 연구가 : 18.9%), 대학 4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20%, 전공관련 행정업무 : 80%, 전공관련 연구가 : 0%)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는 전문대 1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46.3%, 전공관련 행정업무 : 0%, 전공관련 연구가 : 0%, 체육교사 : 7.3%, 전공 무관 업무 : 46.3%), 전문대 2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42.9%, 전공관련 행정업무 : 12.5%, 전공관련 연구가 : 0%, 체육교사 : 3.6%, 전공 무관 업무 : 41.1%), 대학 1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57.6%, 전공관련 행정업무 : 22%, 전공관련 연구가 : 10.2%, 체육교사 : 10.2%, 전공 무관 업무 : 0%), 대학 2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50%, 전공관련 행정업무 : 38.3%, 전공관련 연구가 : 3.3%, 체육교사 : 8.3%, 전공 무관 업무 : 0%), 대학 3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 : 58.3%, 전공관련 행정업무 : 8.3%, 전공관련 연구가 : 0%, 체육교사 : 33.3%, 전공 무관 업무 : 0%)로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은 학년 전체에서 전공관련 행정업무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301$). 체육계열은 대학 4학년이 설문에 응하지 않아서 대학 4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 중 전문대 1학년은 전공관련 지도자와 전공 무관 업무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 2학년,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에서 전공관련 지도자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부모님은 진로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성별에 따른 결과

<표 12>는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2.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가	나	다	라	마	합계
태권도 계열	남	빈도 46 % 28	46 28	66 40.2	응 답	6 3.7	164 100
	여	빈도 29 % 37.7	25 32.5	23 29.9		0 0	77 100
체육 계열	남	빈도 33 % 16.8	93 47.4	57 29.1	응 답	10 5.1	196 100
	여	빈도 5 % 15.6	9 28.1	14 43.8		4 12.5	0 0
		빈도 75 % 31.1	71 29.5	89 36.9	응 답	6 2.5	241 100
		$X^2=6.247$		$df=3$	$p=.100$		
		빈도 38 % 16.7	102 44.7	71 31.1	14 6.1	3 1.3	228 100
		$X^2=7.163$		$df=4$	$p=.128$		

가:매우 찬성한다, 나:찬성한다, 다:보통이다, 라:반대한다, 마:매우 반대한다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때 태권도계열에서 남자는(찬성한다 : 28%, 찬성한다 : 28%, 보통이다 : 40.2%, 반대한다 : 응답없음, 매우 반대한다 : 3.7%), 여자는 (찬성한다 : 37.7%, 찬성한다 : 32.5%, 보통이다 : 29.9%, 반대한다 : 응답없음, 매우 반대한다 : 0%)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 남학생은 (찬성한다 : 16.8%, 찬

성한다 : 47.4%, 보통이다 : 29.1%, 반대한다 : 5.1%, 매우 반대한다 : 1.5%), 여학생은 (찬성한다 : 15.6%, 찬성한다 : 28.1%, 보통이다 : 43.8%, 반대한다 : 12.5%, 매우 반대한다 : 0%)로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은 남자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여자는 매우 ‘찬성한다’가 높게 나왔고 태권도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방향 결정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00$). 체육계열은 남자는 ‘찬성한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여자는 ‘보통이다’가 높게 나왔고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 요인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28$).

(2) 학년에 따른 결과

<표 13>는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3.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가	나	다	라	마	합계	
태 권 도 계 열	A	빈도	7	8	3		0	18
		%	38.9	44.4	16.7		0	100
	B	빈도	21	18	25		1	65
		%	32.3	27.7	38.5		1.5	100
	C	빈도	8	17	8	응 답 없 음	0	33
		%	24.2	51.5	24.2		0	100
	D	빈도	23	18	37		5	83
		%	27.7	21.7	44.6		6	100
	E	빈도	13	10	14		0	37
		%	35.1	27.	37.8		0	100
	F	빈도	3	0	2		0	5
		%	60	0	40		0	100
계	빈도	75	71	89		6	241	
	%	31.1	29.5	36.9		2.5	100	
		$X^2=24.394$		$df=15$	$p=.059$			
체 육 계 열	A	빈도	6	11	18	5	1	41
		%	14.6	26.8	43.9	12.2	2.4	100
	B	빈도	8	16	23	7	2	56
		%	14.3	28.6	41.1	12.5	3.6	100
	C	빈도	12	34	12	1	0	59
		%	20.3	57.6	20.3	1.7	0	100
	D	빈도	9	32	18	1	0	60
		%	15.	53.3	30.0	1.7	0	100
	E	빈도	3	9	0	0	0	12
		%	25	75	0	0	0	100
	F	빈도	응답없음					
		%						
계	빈도	38	102	71	14	3	228	
	%	16.7	44.7	31.1	6.1	1.3	100	
		$X^2=38.119$		$df=16$	$p=.001$			

A:전문대1년, B:전문대2년, C:대학1년 ,D:대학2년, E:대학3년, F:대학4년

가:매우 찬성한다, 나:찬성한다, 다:보통이다, 라:반대한다, 마:매우 반대한다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년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님의 생각 차이에서 태권도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38.9%, 찬성한다 : 44.4%, 보통이다 : 16.7%, 반대한다 : 응답없음, 매우 반대한다 : 0%), 전문대 2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32.3%, 찬성한다 : 27.7%, 보통이다 : 38.5%, 반대한다 : 응답없음, 매우 반대한다 : 0%), 대학 1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24.2%, 찬성한다 : 51.5%, 보통이다 : 24.2%, 반대한다 : 응답없음, 매우 반대한다 : 0%), 대학 2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27.7%, 찬성한다 : 21.7%, 보통이다 : 44.6%, 반대한다 : 응답없음, 매우 반대한다 : 6%), 대학 3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35.1%, 찬성한다 : 27%, 보통이다 : 37.8%, 반대한다 : 응답없음, 매우 반대한다 : 0%), 대학 4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60%, 찬성한다 : 0%, 보통이다 : 40%, 반대한다 : 응답없음, 매우 반대한다 : 0%)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 전문대 1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14.6%, 찬성한다 : 26.8%, 보통이다 : 43.9%, 반대한다 : 12.2%, 매우 반대한다 : 2.4%), 전문대 2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14.3%, 찬성한다 : 28.6%, 보통이다 : 41.1%, 반대한다 : 12.5%, 매우 반대한다 : 3.6%), 대학 1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20.3%, 찬성한다 : 57.6%, 보통이다 : 20.3%, 반대한다 : 1.7%, 매우 반대한다 : 0%), 대학 2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15%, 찬성한다 : 53.3%, 보통이다 : 30%, 반대한다 : 1.7%, 매우 반대한다 : 0%), 대학 3학년은 (매우 찬성한다 : 25%, 찬성한다 : 75%, 보통이다 : 0%, 반대한다 : 0%, 매우 반대한다 : 0%), 대학 4학년은 설문에 응하지 않아서 ‘응답없음’ 으로 처리하였다.

태권도계열은 전문대 1학년과 대학 1학년은 ‘찬성한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전문대 2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은 보통이다가 높게 나왔고, 대학 4학년은 매우 ‘찬성한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차이를 ($p < .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9$). 체육계열은 전문대 1학년과 전문대 2

학년은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은 ‘찬성한다’가 높게 나왔고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귀하의 진로선택은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큼니까?

(1) 성별에 따른 결과

<표 14>는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4.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

		가	나	다	라	마	합계
태권도	빈도	6	73	45	15	25	164
	%	3.7	44.5	27.4	9.1	15.2	100
체육계열	빈도	3	27	20	9	18	77
	%	3.9	35.1	26	11.7	23.4	100
계	빈도	9	100	65	24	43	241
	%	3.7	41.5	27	10	17.8	100
		$X^2=3.459$		$df=4$	$p=.484$		
체육	빈도	응	51	68	28	49	196
	%	응	26	34.7	14.3	25	100
계	빈도	답	6	14	6	6	32
	%	없	18.8	43.8	18.8	18.8	100
열	빈도	음	57	82	34	55	228
	%	음	25	36	14.9	24.1	100
		$X^2=2.022$		$df=3$	$p=.568$		

가:감독이나 코치, 나:부모, 다:친구나 선배, 라:전공교수, 마:자신의 결정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때 태권도계열에서 남자는 (감독이나 코치 :38.2%, 부모 : 28.9%, 친구나 선배 : 13.9%, 전공교수: 11%, 자신의 결정 : 8.1%)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감독이나 코치 :38.2%, 부모 : 28.9%, 친구나 선배 : 13.9%, 전공교수: 11%, 자신의 결정 : 8.1%)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 여자는 (감독이나 코치 : 응답없음, 부모 : 26%, 친구나 선배 : 34.7%, 전공교수: 14%, 자신의 결정 : 25%)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감독이나 코치 : 응답없음, 부모 : 18.8%, 친구나 선배 : 43.8%, 전공교수: 18.8%, 자신의 결정 : 18.8%)로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은 남자와 여자 모두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의 차이를 ($p<.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484$). 체육계열은 남자와 여자 모두 친구나 선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의 차이를 ($p<.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568$).

(2) 학년에 따른 결과

<표 15>는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5.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

		가	나	다	라	마	합계
태 권 도 계 열	A	빈도 3	8	5	1	1	18
		% 16.7	44.4	27.8	5.6	5.6	100
	B	빈도 4	24	14	8	15	65
		% 6.2	36.9	21.5	12.3	23.1	100
	C	빈도 1	12	14	3	3	33
		% 3	36.4	42.4	9.1	9.1	100
D	빈도 0	41	15	10	17	83	
	% 0	49.4	18.1	12	20.5	100	
E	빈도 0	13	17	2	5	37	
	% 0	35.1	45.9	5.4	13.5	100	
F	빈도 1	2	0	0	2	5	
	% 20	40	0	0	40	100	
계	빈도 9	100	65	24	43	241	
	% 3.7	41.5	27	10	17.8	100	
		$X^2=40.091$		$df=20$	$p=.005$		
체 육 계 열	A	빈도 11	23	2	5	41	
		% 26.8	56.1	4.9	12.2	100	
	B	빈도 12	34	7	3	56	
		% 21.4	60.7	12.5	5.4	100	
	C	빈도 16	9	12	22	59	
		% 27.1	15.3	20.3	37.3	100	
	D	빈도 15	13	9	23	60	
		% 25	21.7	15	38.3	100	
	E	빈도 3	3	4	2	12	
		% 25	25	33.3	16.7	100	
	F	빈도 응답없음					
		% 응답없음					
계	빈도 57	82	34	55	228		
	% 25	36	14.9	24.1	100		
		$X^2=52.468$		$df=12$	$p=.001$		

A:전문대1년, B:전문대2년, C:대학1년, D:대학2년, E:대학3년, F:대학4년
 가:감독이나 코치, 나:부모, 다:친구나 선배, 라:전공교수, 마:자신의 결정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요인을 살펴본 결과 태권도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감독이나 코치 :

16.7%, 부모 : 44.4%, 친구나 선배 : 27.8%, 전공교수: 5.6%, 자신의 결정 : 5.6%), 전문대 2학년은 (감독이나 코치 : 6.2%, 부모 : 36.9%, 친구나 선배 : 21.5%, 전공교수: 12.3%, 자신의 결정 : 23.1%), 대학 1학년은 (감독이나 코치 : 3%, 부모 : 36.4%, 친구나 선배 : 42.4%, 전공교수: 9.1%, 자신의 결정 : 9.1%), 대학교 2학년은 (감독이나 코치 : 0%, 부모 : 49.4%, 친구나 선배 : 18.1%, 전공교수: 12%, 자신의 결정 : 20.5%), 대학교 3학년은 (감독이나 코치 : 0%, 부모 : 35.1%, 친구나 선배 : 45.9%, 전공교수: 5.4%, 자신의 결정 : 13.5%), 대학교 4학년은 (감독이나 코치 : 20%, 부모 : 40%, 친구나 선배 : 0%, 전공교수: 0%, 자신의 결정 : 40%)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감독이나 코치 : 응답없음, 부모 : 26.8%, 친구나 선배 : 56.1%, 전공교수: 4.9%, 자신의 결정 : 12.2%), 전문대 2학년은 (감독이나 코치 : 응답없음%, 부모 : 21.4%, 친구나 선배 : 60.7%, 전공교수: 12.5%, 자신의 결정 : 5.4%), 대학 1학년은 (감독이나 코치 : 응답없음, 부모 : 27.1%, 친구나 선배 : 15.3%, 전공교수: 20.3%, 자신의 결정 : 37.3%), 대학교 2학년은 (감독이나 코치 : 응답없음, 부모 : 25%, 친구나 선배 : 21.7%, 전공교수: 15%, 자신의 결정 : 38.3%), 대학교 3학년은 (감독이나 코치 : 응답없음, 부모 : 25%, 친구나 선배 : 25%, 전공교수: 33.3%, 자신의 결정 : 16.7%), 대학교 4학년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태권도계열은 전문대 1학년, 전문대 2학년, 대학 2학년, 대학 4학년에서 ‘부모’가 가장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과 3학년이 ‘친구나 선배’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의 차이를 ($<.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체육계열은 전문대 1학년, 전문대 2학년에서 ‘친구나 선배’가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은 ‘자신의 결정’이 높게 나왔고, 대학 3학년은 ‘전공교수’가 높게 나왔다.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선택의 영향의 차이를 ($<.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귀하의 장래직업 선택의 중요 기준은?

(1) 성별에 따른 결과

<표 16>는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6.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

		적성	능력	급여	장래성	사회봉사	합계	
태권도	남	빈도 14	25	120	3	2	164	
		% 8.5	15.2	73.2	1.8	1.2	100	
체육계열	남	빈도 13	11	53	0	0	77	
		% 16.9	14.3	68.8	0	0	100	
계열	남	빈도 27	36	173	3	2	241	
		% 11.2	14.9	71.8	1.2	0.8	100	
		$X^2=5.775$			$df=4$	$p=.217$		
태권도	남	빈도 42	43	87	24	응답없음	196	
		% 21.4	21.9	44.4	12.2		100	
체육계열	남	빈도 1	12	19	0	응답없음	32	
		% 3.1	37.5	59.4	0		100	
계열	남	빈도 43	55	106	24	응답없음	228	
		% 18.9	24.1	46.5	10.5		100	
		$X^2=12.895$			$df=3$	$p=.005$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기준을 선택할 때 태권도계열에서 남자는(적성 : 8.5%, 능력 : 15.2%, 급여 : 73.2%, 장래성 : 1.8%, 사회봉사 : 1.2%)로 나타났으며, 여자는(적성 : 16.9%, 능력 : 14.3%, 급여 : 68.8%, 장래성 : 0%, 사회봉사 : 0%)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 남자는(적성 : 21.4%, 능력 :

21.9%, 급여 : 44.4%, 장래성 : 12.2%, 사회봉사 : 응답없음)로 나타났으며, 여자는(적성 : 3.1%, 능력 : 37.5%, 급여 : 59.4%, 장래성 : 0%, 사회봉사 : 응답없음)로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은 남자와 여자 모두 ‘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를 ($p < .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217$). 체육계열은 남자와 여자 모두 ‘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를 ($p < .05$)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5$).

(2) 학년에 따른 결과

<표 17>는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7.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

		적성	능력	급여	장래성	사회봉사	합계
태 권 도 계 열	A	빈도 6	3	9	0	0	18
		% 33.3	16.7	50	0	0	100
	B	빈도 8	11	45	0	1	65
		% 12.3	16.9	69.2	0	1.5	100
	C	빈도 5	6	22	0	0	33
		% 15.2	18.2	66.7	0	0	100
	D	빈도 4	13	62	3	1	83
		% 4.8	15.7	74.7	3.6	1.2	100
	E	빈도 4	2	31	0	0	37
		% 10.8	5.4	83.8	0	0	100
	F	빈도 0	1	4	0	0	5
		% 0	20	80	0	0	100
계	빈도 27	36	173	3	2	241	
	% 11.2	14.9	71.8	1.2	0.8	100	
		$X^2=24.062$			$df=20$	$p=.240$	
체 육 계 열	A	빈도 3	8	30	0		41
		% 7.3	19.5	73.2	0		100
	B	빈도 6	7	41	2		56
		% 10.7	12.5	73.2	3.6		100
	C	빈도 15	22	13	9	응답없음	59
		% 25.4	37.3	22	15.3		100
	D	빈도 15	15	19	11		60
		% 25	25	31.7	18.3		100
	E	빈도 4	3	3	2		12
		% 33.3	25	25	16.7		100
	F	빈도	응답없음				
		%					
계	빈도 43	55	106	24		228	
	% 18.9	24.1	46.5	10.5		100	
		$X^2=55.051$			$df=12$	$p=.001$	

A:전문대1년, B:전문대2년, C:대학1년, D:대학2년, E:대학3년, F:대학4년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년에 따라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기준을 선택할 때 태권도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 (적성 : 33.3%, 능력 : 16.7%, 급여 : 50%, 장래성 : 0%, 사회봉사 : 0%), 전문대 2학년은 (적성 : 12.3%, 능력 : 16.9%, 급여 : 69.2%, 장래성 : 0%, 사회봉사 : 1.5%)로 나타났으며, 대학 1학년은 (적성 : 15.2%, 능력 : 18.2%, 급여 : 66.7%, 장래성 : 0%, 사회봉사 : 0%), 대학 2학년은 (적성 : 4.8%, 능력 : 15.7%, 급여 : 74.7%, 장래성 : 3.6%, 사회봉사 : 1.2%), 대학 3학년은 (적성 : 10.8%, 능력 : 5.4%, 급여 : 83.8%, 장래성 : 0%, 사회봉사 : 0%), 대학 4학년은 (적성 : 0%, 능력 : 20%, 급여 : 80%, 장래성 : 0%, 사회봉사 : 0%)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에서 전문대 1학년은 (적성 : 7.3%, 능력 : 19.5%, 급여 : 73.2%, 장래성 : 0%, 사회봉사 : 응답없음), 전문대 2학년은 (적성 : 10.7%, 능력 : 12.5%, 급여 : 73.2%, 장래성 : 3.6%, 사회봉사 : 응답없음), 대학 1학년은 (적성 : 25.4%, 능력 : 37.3%, 급여 : 22%, 장래성 : 15.3%, 사회봉사 : 응답없음), 대학 2학년은 (적성 : 25%, 능력 : 25%, 급여 : 31.7%, 장래성 : 18.3%, 사회봉사 : 응답없음), 대학 3학년은 (적성 : 33.3%, 능력 : 25%, 급여 : 25%, 장래성 : 16.7%, 사회봉사 : 응답없음), 대학 4학년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태권도계열은 학년 전체에서 ‘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240$). 체육계열은 전문대 1학년, 전문대 2학년, 대학 2학년에서 ‘급여’가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은 ‘능력’이 높게 나왔고 대학 3학년은 ‘적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를 ($p < .05$) 수준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태권도 · 체육계열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1) 태권도 계열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1)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표 18. 태권도 계열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변인	성별	N	M(SD)	t	p
교과만족	남자	164	3.53(.06)	-.394	.694
	여자	77	3.58(.08)		
학교만족	남자	164	3.35(.88)	-1.781	.076
	여자	77	3.57(.96)		
사회인식	남자	164	3.62(.10)	-.029	.977
	여자	77	3.62(.10)		
일반만족	남자	164	3.70(.08)	-1.598	.111
	여자	77	3.92(.10)		

*p<.05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 계열의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과만족도의 교과만족도[남자(M=3.53), 여자(M=3.58)], 학교만족도[남자(M=3.35), 여자(M=3.57)], 사회인식만족도[남자(M=3.62), 여자(M=3.62)], 일반만족도[남자(M=3.70), 여자(M=3.92)]으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의 교과만족도($t = -.394$, $p = .694$), 학교만족도($t = 1.781$, $p = .076$), 사회인식만족도($t = -.029$, $p = .977$), 일반만족도($t = -1.598$, $p = .11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표 19. 태권도 계열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변인	학년	N	M(SD)	F	p (post-hoc)
교과만족	전문대 1학년	18	3.83(.85)	.483	.788
	전문대 2학년	65	3.51(.92)		
	대학 1학년	33	3.59(.83)		
	대학 2학년	83	3.52(.82)		
	대학 3학년	37	3.51(.78)		
	대학 4학년	5	3.45(.92)		
학교만족	전문대 1학년	18	3.80(.89)	1.458	.204
	전문대 2학년	65	3.38(.90)		
	대학 1학년	33	3.57(.83)		
	대학 2학년	83	3.37(.93)		
	대학 3학년	37	3.22(.92)		
	대학 4학년	5	3.85(1.08)		
사회인식	전문대 1학년	18	3.64(.91)	.242	.944
	전문대 2학년	65	3.56(.97)		
	대학 1학년	33	3.64(.99)		
	대학 2학년	83	3.69(.83)		
	대학 3학년	37	3.52(1.09)		
	대학 4학년	5	3.73(.72)		
일반만족	전문대 1학년	18	3.79(1.19)	.352	.881
	전문대 2학년	65	3.67(1.03)		
	대학 1학년	33	3.80(.96)		
	대학 2학년	83	3.82(.98)		
	대학 3학년	37	3.73(1.01)		
	대학 4학년	5	4.20(1.02)		

*p<.05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계열의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과만족도의 교과만족도[전문대1년(M=3.83), 전문대2년(M=3.51), 대학1년(M=3.59), 대학2년(M=3.52), 대학3년(M=3.51), 대학4년(M=3.45)]으로 전문대1학년, 대학1학년, 대학2학년, 대학3학년, 전문대2학년, 대학4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만족도[전문대1년(M=3.80), 전문대2년(M=3.38), 대학1년(M=3.57), 대학2년(M=3.37), 대학3년

(M=3.22), 대학4년(M=3.85)]으로 대학4학년. 전문대1학년, 대학1학년, 전문대2학년, 대학2학년, 대학3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인식만족도[전문대1년(M=3.64), 전문대2년(M=3.56), 대학1년(M=3.64), 대학2년(M=3.69), 대학3년(M=3.52), 대학4년(M=3.73)]으로 대학4학년, 대학2학년, 전문대1학년, 대학1학년, 전문대2학년, 대학3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만족도[전문대1년(M=3.79), 전문대2년(M=3.67), 대학1년(M=3.80), 대학2년(M=3.82), 대학3년(M=3.73), 대학4년(M=4.20)]으로 대학4학년, 대학2학년, 대학1학년, 전문대1학년, 대학3학년, 전문대2학년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요인인 교과만족도($p=.788$), 학교만족도($p=.204$), 사회인식만족도($p=.944$), 일반만족도($p=.881$)에서는 전체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체육 계열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1)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표 20. 체육 계열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변인	성별	N	M(SD)	t	p
교과만족	남자	196	3.53(.90)	1.591	.113
	여자	32	3.26(.81)		
학교만족	남자	196	3.34(.95)	1.049	.295
	여자	32	3.15(.97)		
사회인식	남자	196	3.46(.94)	-1.618	.107
	여자	32	3.75(.79)		
일반만족	남자	196	3.75(.87)	-.301	.764
	여자	32	3.80(.72)		

*p<.05

<표 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과만족도의 교과만족도[남자(M=3.53), 여자(M=3.26)], 학교만족도[남자(M=3.34), 여자(M=3.15)], 사회인식만족도[남자(M=3.46), 여자(M=3.75)], 일반만족도[남자(M=3.75), 여자(M=3.80)]으로 학교만족도와 교과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왔고 사회인식과 일반만족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요인인 학과만족도의 교과만족도($t=1.591$, $p=.113$), 학교만족도($t=1.049$, $p=.295$), 사회인식만족도($t=-1.618$, $p=.107$), 일반만족도($t=-.301$, $p=.76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표 21. 체육 계열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변인	학년	N	M(SD)	F	P (post-hoc)
교과만족	전문대 1학년	41	3.27(1.02)	1.751	.140
	전문대 2학년	56	3.39(.99)		
	대학 1학년	59	3.71(.74)		
	대학 2학년	60	3.49(.79)		
	대학 3학년	12	3.58(.94)		
학교만족	전문대 1학년	41	3.28(.93)	1.031	.392
	전문대 2학년	56	3.26(1.02)		
	대학 1학년	59	3.42(.87)		
	대학 2학년	60	3.38(.93)		
	대학 3학년	12	2.85(1.12)		
사회인식	전문대 1학년	41	3.48(1.05)	.417	.796
	전문대 2학년	56	3.40(.98)		
	대학 1학년	59	3.52(.88)		
	대학 2학년	60	3.54(.89)		
	대학 3학년	12	3.75(.56)		
일반만족	전문대 1학년	41	3.78(.74)	.418	.796
	전문대 2학년	56	3.68(.92)		
	대학 1학년	59	3.84(.80)		
	대학 2학년	60	3.70(.90)		
	대학 3학년	12	3.90(.88)		

*p<.05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학과만족도의 교과만족도[전문대1년(M=3.27), 전문대2년

(M=3.39), 대학1년(M=3.71), 대학2년(M=3.49), 대학3년(M=3.58)]으로 대학1학년, 대학3학년, 대학2학년, 전문대2학년, 전문대 1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만족도[전문대1년(M=3.28), 전문대2년(M=3.26), 대학1년(M=3.42), 대학2년(M=3.38), 대학3년(M=2.85)]으로 대학3학년, 대학1학년, 대학2학년, 전문대1학년, 전문대2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인식만족도[전문대1년(M=3.48), 전문대2년(M=3.40), 대학1년(M=3.52), 대학2년(M=3.54), 대학3년(M=3.75)]으로 대학3학년, 대학2학년, 대학1학년, 전문대1학년, 전문대2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만족도[전문대1년(M=3.78), 전문대2년(M=3.68), 대학1년(M=3.84), 대학2년(M=3.70), 대학3년(M=3.90)]으로 대학3학년, 대학1학년, 전문대1학년, 대학2학년, 전문대2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의 요인인 교과만족도($p=.140$), 학교만족도($p=.392$), 사회인식만족도($p=.796$), 일반만족도($p=.796$)에서는 전체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태권도 · 체육계열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1) 태권도 계열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1)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표 22. 태권도 계열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변인	성별	N	M(SD)	t	p
진로상담	남자	164	3.20(.84)	-.756	.450
	여자	77	3.29(.86)		
진로탐색	남자	164	3.43(.73)	1.976	.049*
	여자	77	3.22(.82)		
진로노력	남자	164	3.33(.85)	-.900	.369
	여자	77	3.44(.84)		

*p<.05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진로정체감의 진로상담[남자(M=3.20), 여자(M=3.29)], 진로탐색[남자(M=3.43), 여자(M=3.22)], 진로준비노력[남자(M=3.33), 여자(M=3.44)]으로 학교만족과 교과만족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왔고 진로탐색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요인 중 진로탐색(t=1.976, p=.04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로상담(t=-.756, p=.450), 진로준비노력(t=-.900, p=.369)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표 23. 태권도 계열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변인	학년	N	M(SD)	F	P (post-hoc)
진로상담	전문대 1학년	18	3.25(.80)	.091	.994
	전문대 2학년	65	3.24(.92)		
	대학 1학년	33	3.20(.85)		
	대학 2학년	83	3.24(.85)		
	대학 3학년	37	3.24(.79)		
	대학 4학년	5	3.00(.74)		
진로탐색	전문대 1학년	18	3.40(.72)	1.379	.233
	전문대 2학년	65	3.32(.79)		
	대학 1학년	33	3.25(.72)		
	대학 2학년	83	3.52(.79)		
	대학 3학년	37	3.19(.67)		
	대학 4학년	5	3.13(.55)		
진로노력	전문대 1학년	18	3.22(.97)	.563	.728
	전문대 2학년	65	3.43(.89)		
	대학 1학년	33	3.50(.77)		
	대학 2학년	83	3.35(.83)		
	대학 3학년	37	3.28(.83)		
	대학 4학년	5	3.05(.90)		

*p<.05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권도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진로정체감 요인의 진로상담[전문대1년(M=3.25), 전문대2년(M=3.24), 대학1년(M=3.20), 대학2년(M=3.24), 대학3년(M=3.24), 대학4년(M=3.00)]은 전문대1년, 전문대2년, 대학3년, 대학2년, 대학1년, 대학4년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탐색[전문대1년(M=3.40), 전문

대2년(M=3.32), 대학1년(M=3.25), 대학2년(M=3.52), 대학3년(M=3.19), 대학4년(M=3.13)]은 대학2년, 전문대1년, 전문대2년, 대학1년, 대학3년, 대학4년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노력[전문대1년(M=3.22), 전문대2년(M=3.50), 대학1년(M=3.50), 대학2년(M=3.35), 대학3년(M=3.28), 대학4년(M=3.05)]은 대학1년, 전문대2년, 대학2년, 대학3년, 전문대1년, 대학4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요인인 진로상담(p=.994), 진로탐색(p=.233), 진로준비노력(p=.728)에서는 전체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체육 계열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1)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표 24. 체육 계열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변인	성별	N	M(SD)	t	p
진로상담	남자	196	3.39(.67)	-.558	.577
	여자	32	3.46(.82)		
진로탐색	남자	196	3.46(.82)	1.241	.216
	여자	32	3.27(.94)		
진로노력	남자	196	3.10(.79)	-1.289	.199
	여자	32	3.30(.88)		

*p<.05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진로정체감의 진로상담[남자(M=3.39), 여자(M=3.46)], 진로탐색[남자(M=3.46), 여자(M=3.27)], 진로준비노력[남자(M=3.10), 여자(M=3.30)]으로 진로상담과 진로준비노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왔고

진로탐색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진로상담($t=-.558, p=.577$), 진로탐색($t=1.241, p=.216$), 진로준비노력($t=-1.289, p=.199$)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표 25. 체육 계열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변인	학년	N	M(SD)	F	p (post-hoc)
진로상담	전문대 1학년	41	3.44(.74)	.100	.982
	전문대 2학년	56	3.40(.92)		
	대학 1학년	59	3.39(.80)		
	대학 2학년	60	3.40(.90)		
	대학 3학년	12	3.30(.88)		
진로탐색	전문대 1학년	41	3.46(.93)	1.024	.396
	전문대 2학년	56	3.51(.80)		
	대학 1학년	59	3.54(.79)		
	대학 2학년	60	3.29(.85)		
	대학 3학년	12	3.22(.80)		
진로노력	전문대 1학년	41	3.15(.81)	.205	.936
	전문대 2학년	56	3.20(.89)		
	대학 1학년	59	3.09(.79)		
	대학 2학년	60	3.11(.78)		
	대학 3학년	12	3.02(.63)		

* $p<.05$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육계열의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를 알아본 결과이다. 진로정체감 요인의 진로상담[전문대1년(M=3.44), 전문대2년(M=3.40), 대학1년(M=3.39), 대학2년(M=3.40), 대학3년(M=3.30)은 전문대1학년, 대학2년, 전문대1학년, 대학1년, 대학3년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탐색[전문대1년(M=3.46), 전문대2년(M=3.51), 대학1년(M=3.54), 대학2년(M=3.29), 대학3년(M=3.22)은 대학1년, 전문대2년, 전문대1년, 대학2

년, 대학3년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노력[전문대1년(M=3.15), 전문대2년(M=3.09), 대학1년(M=3.09), 대학2년(M=3.11), 대학3년(M=3.02)]은 전문대2년, 전문대1년, 대학2년, 대학1년, 대학3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요인인 진로상담(p=.982), 진로탐색(p=.396), 진로준비노력(p=.936)에서는 전체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태권도 · 체육계열의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1) 태권도 계열의 상관관계

표 26.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a	b	c	d	e	f	g
a	1						
b	.660**	1					
c	.560**	.374**	1				
d	.658**	.526**	.651**	1			
e	.078	.044	.111	.125	1		
f	.024	.051	.050	.045	.279**	1	
g	.062	.101	.111	.120	.633**	.287**	1

*p<.05, **p<.01

a=교과만족, b=학교만족, c=사회만족, d=일반만족, e=진로상담, f=진로탐색, g=진로노력

<표 26>은 태권도계열의 상관관계에서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각 변인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들이 평가한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6>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각 요인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모든 요인의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

2) 체육 계열의 상관관계

표 27.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a	b	c	d	e	f	g
a	1						
b	.031	1					
c	.028	.153*	1				
d	.172**	.149*	.270**	1			
e	.007	-.073	.096	-.037	1		
f	.120	-.019	-.075	-.037	.104	1	
g	-.047	.022	.040	.179**	.203**	.111	1

*p<.05, **p<.01

a=교과만족, b=학교만족, c=사회만족, d=일반만족, e=진로상담, f=진로탐색, g=진로노력

<표 27>은 체육계열의 상관관계에서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각 변인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들이 평가한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7>의 학과만족도의 요인 중 사회만족도와 일반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일반만족도는 교과만족도, 학교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진로정체감의 요인 중 진로준비노력은 일반만족도와 진로상담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진로상담은 학교만족도, 일반만족도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진로탐색은 학교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V. 논 의

본 연구는 태권도·체육계열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 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규명함으로써 태권도·체육계열의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에 대해 유의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태권도·체육계열의 전공 선택 동기 차이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태권도계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전공유형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학과인기도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주변권유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에서 전문대 1학년, 전문대 2학년,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 대학 4학년 전체 학년이 학과인기도를 선택하여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대 1학년,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은 주변권유에서 가장 낮고, 전문대 2학년은 입학점수에서 가장 낮고, 대학 3학년은 입학점수와 주변권유에서 가장 낮고 대학 4학년은 취업전망, 입학점수, 주변권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특히 입학점수와 주변권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의 성별,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Ye(2014)는 타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능동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태권도계열 전공

선택을 한 학생들이 높은 전공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말했으며, 박상호(2017)의 연구에서는 능동적 선택은 개인의 경험이나 환경에서 우러나오는 전공 선택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설명되며, 태권도계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가 태권도를 전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개인의 목표의식과 태권도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높게 평가하게 되면서 전공 선택 동기에 대해 이처럼 학과인기도가 높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체육계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적성과 흥미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는 입학점수와 주변권유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대 1학년과 전문대 2학년은 주변권유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과 대학 2학년은 학과인기도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대학 3학년은 적성과 흥미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와 관련된 유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왕유월(2021)은 전공 선택 동기는 성별, 적성, 흥미, 입학점수, 가정환경, 지도교수, 대학 관련 요인, 사회적 배경과 같이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더 많이 선택했을 것이라 말했고, 조경자, 이현숙(2005)과 김미숙 등(2010)의 연구에서도 적성과 흥미, 성적, 미래성, 입학성적 등 보단 전공인기도, 사회적 배경, 주변권유 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해주어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전공 동기를 선택할 때 적성과 흥미, 취업전망, 입학점수, 학과인기도, 주변의 권유로 설정하였지만, 체육계열 전공자들은 개인의 가치관과 적성과 흥미 등 과 타인 또는 외부적인 상황들이 상호작용을 이루어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한 자아인식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고 논의나

논쟁에 대해 빠르게 변하고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대학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 학년, 전공유형마다 전공 선택 동기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태권도계열은 전공에 대한 자긍심과 단합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특화된 전공과 동기유형들이 제시되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2. 태권도·체육계열의 진로 선택 차이

본 연구의 결과를 따르면 태권도·체육계열의 성별,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 졸업 이후 본인의 진로방향, 부모님이 생각하는 진로방향, 진로 선택의 영향, 장래직업 선택 기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에서 태권도계열의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자와 여자 모두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권도계열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선택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박상배, 권오성(2013)은 태권도 전공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에 성별에 대한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비슷한 해석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자와 여자 모두 태권도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고 있어 진로 선택 시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넓게 작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에 따른 결과는 학년 전체에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천(1991)의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진로선택 요인에 관하여 조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선택 시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을 나타내고 있다. 정두

환 등(2010)은 태권도 전공자는 자신의 적성을 선호한다고 말했으며, 전문성을 띄고 있는 태권도로 인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으로 학업을 시작하여 자신의 역량을 확장시켜 대학을 졸업 후에 진로를 선택할 때 본인의 전공을 직업으로 연계하여 취업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에서 체육계열의 성별,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자는 그렇다, 여자는 보통이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염뢰우(2016)의 연구결과에서 체육계열 대학생들은 세계적인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인하여 교사라는 직업의 안전성, 공무원의 혜택, 안정적인 급여 등의 이유로 체육교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뒷받침하고 있다. 체육계열 전공자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진로희망, 진로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과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직업군에 대해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결과는 전문대 1학년과 전문대 2학년은 보통이다가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은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숙, 김도연(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체육계열 전공자들은 진로선택의 변화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자 대학생들이 진로선택에 많은 경험에 갈등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손승범, 김옥현(2020)의 연구 결과에서는 체육 관련 공기업 및 중등교사, 대학교수 등을 선호하며 대학원 진학 후 체육교사 및 교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말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체육계열 전공자들은 졸업 후에 미래직업을 선택할 때 체육계열의 직업을 희망하나, 경제적인 배경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계열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며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졸업 이후 진로방향을 결정을 할 때 태권도계열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결과 성별과 학년 모두 전공관련 행정업무가 가장 우세하게 나왔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환 등(2010)에서는 태권도학과를 대상으로 졸업 후 태권도 관련 분야의 직업을 희망 진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슷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임용수(1993) 연구결과에서 대학 생활자체가 전공 영역별로 설정되어 있고 대체로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어 있다고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치나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목표성향이 뚜렷하고 전공 관련 실무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구성하여 우선시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졸업 이후 진로방향을 결정할 때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결과 남자에서 전공관련 행정 업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체육교사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정우용(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체육계열학과를 졸업하고 본인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진로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다수의 체육계열학과 학생들이 전공분야로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전공과 연관된 취업자리가 다소 부족하고, 타과 학생들보다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공분야를 선택하기보다는 전공과 무관한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석(2006)과 박세화(2001)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가 실력 향상, 좋은 직상의 선택, 그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진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에 따른 결과에서는 전문대 1학년에서 전공관련 지도자와 전공 무관 업무가 동일한 값을 나타냈으며 대학 3학년, 대학 2학년, 대학 1학년, 전문대 2학년 순으로 전공관련 지도자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부길(2013)의 연구결과에서 대학 졸업이 임박해오면 학생들은 진로방향에 대해 나름 갈등과 고민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숙, 김도연(2008)은 체육계열은 학과 특성에 알맞는 직업분야로 지도자 양성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급이 올라갈수록 진중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어 체육계열의 진로방향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연

결되지 못하는 사회의 전반적 여건에 대한 문제이고 체육에 대해 반발하는 사회 인식에서 도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모님은 진로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권도 계열의 성별에 따른 결과 남자에서 보통이다가 높게 나왔고, 여자는 찬성한다가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학년에 따른 결과는 전문대 1학년, 대학 1학년에서 찬성한다가 높게 나왔고, 전문대 2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은 보통이다가 높게 나왔고, 대학 4학년은 매우 찬성한다가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성문(2003)의 연구결과에서 체육계열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고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장래직업 분야에 대해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진로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자는 보통이다가 높게 나왔고, 여자는 찬성한다가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학년에 따른 결과는 전문대 1학년과 전문대 2학년은 보통이다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은 찬성한다가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경숙, 김도연(2008)의 연구결과에서 체육 관련학과 학생들의 대다수가 진로 선택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했고 시기는 2, 3학년이라고 말했으며 진로 변화의 계기는 주로 개인적 관심이나 부모 등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사회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경제 수입, 사회 복지 등 예전보다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고 말했다(공몽원, 2021).

넷째, 진로선택의 영향에서 태권도계열의 성별에 따른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결과에서는 전문대 1학년, 전문대 2학년, 대학 2학년, 대학 4학년에서 부모가 가장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과 3학년에서 친구나 선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준비에 대한 올바른 방향설정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불안정하여, 외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을거라 사료된다. 이승구, 이제경(2010) 연구결과에서는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아 직업목표를 설정하여 구체화하는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진석(2006)은 취업 상담은 지도교수나 취업상담 부서보다 주로 선배나 동료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 정보도 전담 부서 보다는 인터넷 사이트나 선배 및 동료로부터 얻는다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공에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 정기적인 인·적성 검사 또는 간접적인 경험 등을 통하여 태권도계열 전공자들에게 폭 넓은 진로방향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진로선택의 영향에서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자와 여자 모두 친구나 선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결과는 전문대 1학년, 전문대 2학년에서 친구나 선배가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에서 자신의 결정이 높게 나왔고, 대학 3학년에서 전공교수가 높게 나와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1학년과 전문대 2학년 집단은 낮은 환경 속에서 자신과 동등하고 가깝고 편하다고 판단되는 친구나 선배가 높게 나왔다고 사료된다.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대학 3학년 집단에서 자신의 결정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점차 나아가 전공 교과나 활동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송윤정(2013)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전공교수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여 진로에 대한 뚜렷한 방향 설정과 전공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전공교수간의 친밀감과 신뢰도가 높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장래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태권도계열의 성별, 학년에 따른 결과

성별과 학년 모두 급여가 우세한 결과를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경섭(2018)은 전문성에 대한 의식이 직업에 대한 긍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의식과 긍지의 현실적 보상이 급여라는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사회적 지위나 보수를 쫓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김수영(2007) 및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수가 가장 높았던 양대석, 최영렬(2009)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전공자 개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본인이 행하는 일에 대한 긍지는 적절한 급여를 받게 될 때 더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장래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자와 여자 모두 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결과는 전문대 1학년, 전문대 2학년, 대학 2학년은 급여에서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은 능력에서 높게 나왔고 대학 3학년은 적성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숙, 김도연(2008)의 연구결과에서 체육관련 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은 전공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직업과 실직 위험이 적은 안정적인 직업, 수입이 많은 직업 등 현실감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비슷한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안정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3. 태권도 · 체육계열의 학과만족도 차이

학과만족도의 하위요인은 교과만족도, 학교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태권도계열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결과 4개의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태권도계열 성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교과만족도, 학교만족도, 일반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고, 사회인식만족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나타났다. 학년에서 교과만족도는 전문대 1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대학생살을 적응하면서 교과에 대한 인지력이 향상되어 높게 나왔을 거라 사료된다. 학교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에는 대학 4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졸업을 앞두고 학교와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전공의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결과가 우세하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체육계열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학과만족도 차이 결과 4개의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체육계열 성별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교과만족도, 학교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고, 남자보다 여자가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자가 교과만족도와 학교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난 비슷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상진, 김재엽(2007)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체육계열 학과에서 활동성 있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학년에서 교과만족도는 대학 1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한지숙(2014)은 실무교과목의 질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 또한 높아지며, 김태희, 장경로(2007)는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전공만족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학교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는 대학 3학년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초입 단계로 취업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한예정(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만족스러운 학점취득과 학교생활 등 학교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태권도 · 체육계열의 진로정체감 차이

태권도 ·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정체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진로상담, 진로탐색, 진로준비노력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태권도계열의 성별,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 결과 진로상담과 진로준비노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로탐색에서만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연구대상을 얼마나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권혁진, 2009). 진승태, 민병석(2018)은 특히 태권도를 전공하는 대학생은 태권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구체성과 한계성사이의 딜레마에서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긍정적인 자기 동기 부여와 주도적 통제는 태권도 직업의 구체적 비전의 방향성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이는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려는 사고개념이 명료화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성과 개인의 신념이이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학년에 따른 진로상담은 전문대 1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탐색은 대학 2년이 높게 나왔고, 진로준비노력은 대학 1년이 높게 나타났다. 김태선(2003)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고학년에서 저학년 순으로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

문에 학년의 문제가 아닌 개인 스스로의 진로정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체육계열 분석 결과 성별,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진로상담과 진로준비 노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왔고 진로탐색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진로상담은 전문대 1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탐색은 대학 1학년이 높게 나타났고, 진로준비노력은 전문대 2학년으로 대부분 저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1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탐색을 실시하여 진로결정과 진로준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된다(권혁진, 2009).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체육계열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 태권도·체육계열의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을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22년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를 선정한 후 재학 중인 태권도·체육계열 남자와 여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유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022년 5월1일부터 2022년 5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6부를 제외한 469명의 설문지 내용으로 결정적인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할 통계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교차분석(χ^2), 차이분석(독립t-test,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LSD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하여 나온 자료를 통해 태권도·체육계열의 전공 선택 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체육계열의 전공 선택 동기에 있어서 태권도계열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결과 성별과 학년 두 특성 모두 학과인기도가 가장 많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열의 성별에 따른 결과 전공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태권도계열의 진로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은 성별과 전 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계열의 진로선택에 대한 전공 선택 관련성 결과 남·여 전 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의 진로선택에 대한 졸업 이후 진로방향은 성별과 전 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계열의 진로선택에 대한 졸업 이후 성별에 따른 진로방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태권도계열의 진로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차이에는 성별과 전 학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계열의 진로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차이에서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권도계열의 진로선택의 영향 차이에는 성별에서 남·여 모두 부모가 높게 나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학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육계열의 진로선택의 영향 차이에는 성별에서 남·여 모두 친구나 선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학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태권도계열의 장래직업 선택의 중요기준에는 성별과 학년에서 남·여, 전 학년 모두 급여가 높게 나와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계열의 장래직업 선택의 중요기준에는 성별에서 남·여 모두 급여가 높게 나와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에는 급여, 능력, 적성이 높게 나와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태권도·체육계열 학과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태권도계열에서 교과만족도, 학교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는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사회인식만족도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나왔다. 학년에서는 교과만족도에서 대학 2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고, 학교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에서 대학 4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고 전체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계열의 학과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학교만족도, 교과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왔고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교과만족도에서 대학 1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고, 학교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 일반만족도에서 대학 3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고 전체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태권도·체육계열 진로정체감 차이 분석 결과 태권도계열에서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진로상담과 진로준비노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왔고, 진로탐색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왔다. 학년에서 전문대 1학년이 진로상담에 높게 나왔고, 대학 2학년이 진로탐색에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이 진로준비노력에 높게 나와 결과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계열에서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진로상담과 진로준비노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왔고, 진로탐색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왔다. 학년에서 전문대 1학년이 진로상담에 높게 나왔고, 대학 1학년이 진로탐색에 높게 나왔고, 전문대 2학년이 진로준비노력에 높게 나와 결과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분석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지역을 고려하여 태권도·체육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 별 전공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대상을 세밀한 전공으로 나누면 태권도·체육계열의 전공 특성화 운영방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문지는 3개의 요인을 가지고 진로정체감을 조사하였으나 추후 다른 관련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심도 깊은 요인을 채택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철우(2014).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학업태도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 고은미(2005). 체육계열 전공자들의 직업기대가 전공 및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고재성, 정철영(2006). 대학 진로서비스 평가준거 개발. **농업교육과인적자원 개발**, 38(4), 141-160.
- 공몽원(2021). 학생선수 학부모의 교육기대에 대한 한·중·일 비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곽정현(2005).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을 통한 태권도의 학문적 방향모색. **한국체육학회지**, 44(5), 69-78.
- 구윤희(2007). 대학생의 전공 선택유형과 학업적 적응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권혁미(2014). 간호대학생의 행복유형과 학과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 권혁진(2009). 체육계열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섭(2018). 태권도 지도자의 직업의식과 직무만족 및 역할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6(4), 1173-1183.
- 김경숙, 김도연(2008). 체육관련학과 전공교육이 전공에 대한 인식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 73-87.
- 김경지, 곽정현(2004).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탐색을 통한 표준교육과정 개발모색.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663-1674.
- 김동진(2020).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진로 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미숙, 박소미, Wang Chengying, 서하얀, 주영주, 이경열, 최은숙(2010).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 및 직업관. **한국응
 급구조학회지**, 14(3), 29-40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연화**.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상진, 김재엽(2007). 경호관련학과 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
 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8(4), 3-13.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
 구**, 10(2), 215-237.
- 김성문(2003). **체육계열 신입생의 대학 진학 과정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세진, 예기훈(2014). 안경광학과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 및 전공 만족
 도의 관계-충청지역 중심으로-. **대한시과학회지**, 16(3), 249-260.
- 김수영(2008).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영민(2011).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승(2002). **체육계열 학생들의 전공유형과 전공만족의 관계**.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하(2006). **대학 체육전공자들의 장래 직업기대에 따른 전공만족연구**. 미
 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호(2013).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위계문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석(2006). **대학 태권도 전공자들의 졸업 후 희망 진로 선택에 관한 연
 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 김태선(2003).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태희, 장경로(2007).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및 학과만족, 그리고 대학 및 직업위상에 대한 인식이 전공 관련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1), 69-78.
- 대학내일20대 연구소(2013). <https://www.20slab.org/Archives/375>
- 대한태권도협회(2012). <http://www.koreataekwondo.co.kr>
-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2018). <http://www.doopedia.co.kr>
- 박상배, 권오성(2013). 태권도학과 대학생의 진로선택 실태와 영향요인. **대한무도학회지**, 15(1), 207-218.
- 박상호(2017). 태권도 전공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8(2), 1-22.
- 박세화(2001). **축구선수들의 진로의식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박채화(2001). **축구 선수들의 진로의식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박태원(2019).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저소득층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형모, 문승태(2005). 대학생들의 진로계획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 18(2), 157-170.
- 백정희(2007). **대학 무용전공자의 신체자신감과 학습 태도 및 전공 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부(1995).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9(1).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부(2001).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정조사 보고서**.
- 석부길(2013).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한 체육계열 전공자들의 진로결정 방향.

-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779-791.
- 손승범, 김옥현(2020).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9(2), 123-142.
- 송윤정(2014).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신은지(2017). **미용전공 대학생의 전공 선택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안보영(2017). **체육계열 대학생의 학과만족도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대석, 최영렬(2009).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진로의식 성숙도와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 2(1), 21-29.
- 양정호(200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염뢰우(2016). **한·중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선택 동기 및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왕유월(2021).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도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7), 27-39.
- 윤수경, 한유경, 임소현, 김화영(2015). 대학 및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3(2), 87-107.
- 윤주영(1999). 진로결정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경상대 학생생활연구소**, 5(1).
- 이건남, 정철영(2009). 고등학생의 대학전공 선택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농업교육학회**, 41(1), 88-90.
- 이선영(2009).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 및 전공만족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영(2009).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요인 및 전공만족, 진로선택에 대한 조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세정(2000). **학부제 입학생의 전공 선택 및 결정과정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승구, 이제경(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21(3), 1-25.
- 이우근(2009). **체육계열학과 대학생들의 진로변화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경(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집단 상담 프로그램 연구**.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35(1), 126-134.
- 이정희(2001). **서원대생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의식조사**. 학생생활연구;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 75-99.
- 이종구, 윤창영, 황경열(2002). **200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 이지현(2005).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형국(2007).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순길(2004). **체육과학대학 재학생 대학생활 의견조사**.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2, 185-201.
- 임용수(1993).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9, 107-129.
- 장석민(2000).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 장해숙(2007).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전익기, 조성균, 광정현(2001). **태권도 경기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 10(2).

- 정두환, 정관목, 최정규, 이수진, 전정우(2010).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진로의식 및 방향모색. **경희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 3(2), 19-27.
- 정우용(2008). **체육계열 전공자들의 진로모색 방안에 관한 연구:체육행정·경영 및 스포츠 언론매체 분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정희(1992). 체육학과 지도자 양성방향과 진로모색. 한국체육학회 국제학술세미나.
- 정태봉(2005). 체육계열학과 진학 희망 학생의 진로탐색에 관한 연구. **학교체육연구소지**, 13(1).
- 조경자, 이현숙(2005).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육아교사직에 대한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289-312.
- 조기욱(2017). **체육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의용과학대학원.
- 조재천(1991).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진로결정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지현(2003). **한·일 대학 유도 선수들의 생활실태 및 진로선택에 관한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지치환, 윤상화, 조임형(1997). 태권도 연구경향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 9(2), 153-166.
- 진승태, 민병석(2018). 태권도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0(1), 71-87.
- 체육백서(2007). 문화체육관광부.
- 최상진(2000). **태권도학 전공 신입생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의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최지아(2015). **미용 전공 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수업참여도·전공만족도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추상희(2020). **관현악 전공생들의 전공선택요인·진로준비행동·진로결정수준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하진의(2003). **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백록논총**, 5(2), 229-251.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만족,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경제연구원(2020). **2009년-2019년 OECD 청년 실업지표 비교분석 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200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동향 분석: 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개발원.
-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2004). **재학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7, 1-80.
- 한예정(2014).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수업참여도와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연구-조리·외식관련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한정신(1991). **한국 대학생 무제진단검사 개발연구**. 학생생활연구; **숙명여자대학교학생생활지도연구소**, 17(1), 1-53.
- 한지숙(2014). **관광관련학과 교과과정 중 실무교과목이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 홍순모, 이지은, 조영아(2002). **2002 재학생 실태조사**.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
- 홍순모, 장경원, 허재홍(1998). **재학생 실태조사**.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생활상담.

홍창기(2019).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요인 및 학과만족도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Arthur, M., Hall, D., & Lawrence, B. (1989). *The handbook of career the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rr, R.(1970).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29-37.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Holland, J. J.,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

Isaacson, L. E., & Brown, D. (2000).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ed Nedham Height.

John E. Nixon & Ann E. Jewett. (1980). *An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saunderscollege Philadelphia.

Phillips E. (1976). *Neasurmentand evaluation in physicaleducation*. New York: John WileyandInc.P.1.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대학 태권도·체육계열 전공 선택동기, 진로선택,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고 태권도 및 체육계열 대학 선택에 기초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학위논문의 실증자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강대길

지도교수 : 이 계 행

I. 다음은 귀하의 진로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1	<p style="text-align: center;">나의 직업선택은 전공 선택과 관련성이 높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p>
2	<p style="text-align: center;">졸업 이후 진로방향을 결정했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전공관련 지도자 ② 전공관련 행정업무 ③ 전공관련 연구가(교수, 연구원) ④ 체육교사 ⑤ 전공 무관 업무</p>
3	<p style="text-align: center;">부모님은 귀하의 진로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p>
4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의 진로선택은 누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감독이나 코치 ② 부모 ③ 친구나 선배 ④ 전공교수 ⑤ 자신의 결정</p>
5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가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적성 ② 능력 ③ 급여 ④ 장래성 ⑤ 사회봉사</p>

II. 다음은 귀하의 학과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과(학부)의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과(학부)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를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과(학부) 교수님들은 전공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전공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전공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학과(학부)의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전공도서는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학과(학부)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우리 학과(학부)에서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속한 학과(학부)는 사회적으로 인기학과(학부)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속한 학과(학부)에 대해서 멋있다고 자랑스럽게 말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학과(학부)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학과(학부)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학과(학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우리 학교를 평가한다면 우리학교를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학과(학부)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학교는 내가 다닐만한 학교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많은 후배들에게 우리 학교를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 특을 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귀하의 진로정체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직업선택을 올바르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의 나의 흥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지 몰라서 염려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즐겁고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를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종류의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 있어서 진로에 관한 결심을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임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진로에 관한 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혼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나의 평가는 해마다 다소 간의 변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 있어서 나 자신에 관하여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확신을 갖고 시작하지는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선택한 전공영역은?

- ① 태권도계열 ② 체육계열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학년은?

- ① 전문대 1학년 ② 전문대 2학년 이상
 ③ 대학 1학년 ④ 대학 2학년 ⑤ 대학 3학년 ⑥ 대학 4학년

4. 귀하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선택동기는?

- ① 적성과 흥미 ② 학과 인기도 ③ 취업전망 ④ 점수(입학점수, 학점)
 ⑤ 주변의 권유